

9/29(화) 시편 묵상 26

시편 86:1-17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윗의 시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시의 대략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때(1절)”, “환난 날에(7절)”, “깊은 스올에 빠졌을 때(13절)”,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그의 영혼을 찾았던 때(14절)”에 이 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있어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본문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당한 이 어려움은 그가 지은 죄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자들은 이 시가 개인 애가의 형식을 띤 ‘기도의 시’라고 말합니다.

9가지 고백

시편 86편의 구조적인 특징은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부르짖는 이유를 표현하는 구절이 아홉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 1) 1절,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 2) 2절, ‘나의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 3)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 4) 4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 5) 5절, ‘주의 인자하심이 후하게 하소서. 주는 선하시며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 6) 7절,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 7) 10절,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소서. 주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8) 13절, ‘주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소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 9) 17절, ‘주여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구하는 기도에는 시인의 ‘간절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눅 18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한 과부의 간청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눅 18:5-7,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둘째로, 기도의 ‘겸손함’에 대한 한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눅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날마다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고난 속에서 그가 당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기도의 내용 중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염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마 7:9-10,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요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가진 신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 만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유일신 신앙을 고백함

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시며, 주의 백성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다윗은 현재 그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짐의 고백

시인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11-12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인의 다짐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영원히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교만하고 포악한 자의 무리입니다(**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교만하고 포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곧 멸망일 것입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난 중에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마 28:20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진 신관에 문제가 있으며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더욱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신실한 태도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제목

1. 다윗과 같이 우리도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창배<우크라이나>, 전만규<우크라이나>, 김영무<남아공>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